

20대의 음주생활에 관한 연구

- 청주시역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

The Drinking Life of Youngsters aged between 20 and 30
- Focus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he Workers
in Chongju Area -

김준숙 · 안성순* · 김인숙**
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

Kim, Jun Sook · An, Sung Soon* · Kim, In Sook**
Dep. Home Economics Educa., Colle. of Educa., Seowon Univ.

Abstract

Nowadays drunken drive and other problems related to drinking have been increased in our society. Those problems, we believe, are just the outcomes of undesirable drinking life. To investigate the drinking life of youngsters aged between 20 and 30, 271 university students and workers in Chongju area were surveyed, focusing on attitude toward drinking, drinking behavior and drinking habi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Youngsters, regardless of their sex, have generous attitude toward drinking.
2. Youngsters usually drink to get along with their friends or fellow workers.
3. The university students drink alone more frequently than the workers do. And to drink alone occurs when they feel mental stress or face difficulties.
4.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he workers do not differ in terms of average drinking frequency per month, the number of pubs they stop by per drinking occasion, and the kind of liquor they take.
5. Above 80% of the car owners have experienced the drinking drive. And they tend to smoke more while drinking.

I. 서론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 형태는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되어 변화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아직도 지구의 여러곳에서나 우리나라의 일부계층 중에서는 예외현상을 보이긴 하지만, 현대인의 식생활은 원래 식생활의 기본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적 욕구 충족에서 상당히 벗어나 그 내용면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술도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우리의 생

활을 풍부하게 해 주므로 우리 선조들은 술을 적당히 즐기으로써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외국의 어느 통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점을 가리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술을 잘 빚고 즐겼기 때문일 것으로 평가한 (월간 식생활, 1986.9, 69)점에서도 잘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서구문화의 다량유입에 따라 향락주의가 만연해지면서 흡연과 술의 소비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확대로 인하여 음주생활이 점차 무질서해지고 사회 각층으로 술이 범람하게 되었다 (김운주, 1986). 또한 많은 현대인들이 산업

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인한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으로 술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 국민전체의 건강까지 염려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동아일보, 1995.11.8일자)는 국민생활과 술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일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음주는 때로는 식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약물로 까지 취급될 만큼 그 의미가 많이 변색되어 가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88년에 발표된 김성이 교수의 연구결과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 및 음주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 경험한 흡연, 음주, 그리고 피로회복제 복용율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중 학교 청소년의 50.3%, 근로 청소년의 71.6%, 그리고 비행 청소년의 93.3%가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소비자시대, 1988.8, 89에서 재인용). 또한 외국의 어느 연구결과에서는 술을 마시는 고등학생의 10~20% 정도가 술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의학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하면서 소년 범죄자들 중에는 술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전체적인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 조사자료에서도 음주자들 중 적어도 10% 이상에게 음주에 의한 문제가 따르고 있고, 사망자의 10% 정도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 음주의 문제는 결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월간 식생활, 1991.2, 111에서 재인용)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술은 인간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소량의 알코올의 섭취로 긴장감을 해소시켜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고통을 없애주며,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등 인간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기도 하는 반면, 때로는 지나친 음주가 범죄로 연결될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한다(김운주, 1986). 더욱이 근래에 와서는 청소년과 여성 음주자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자에 의한 각종 사고가 보고되고 있고, 얼마전에는 모대학에서 신입생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술로 인한 악영향이 거듭적인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음주로 인한 문제가 사회에 점차 만연되어 가고 모두들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습관 및 음주에 관한 의식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젊은 세대들의 음주습관 및 이에 대한 그들의 의식구조를 살펴 봄으로써 앞으로의 건전한 음주생활 유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음주생활은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을 청주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학생과 개별수입이 있는 20대 직장인들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II. 문헌고찰

본 연구를 위한 문헌고찰에서는 술과 관련된 부분은 중 술의 기원이나 술의 인체에서의 작용과 올바른 음주요령 등의 내용은 본 연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였고, 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현상 및 우리나라 사람의 음주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은 찬 술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반면 일본인들은 술을 데워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이는 일본인들의 음식이 담백한 데 반해 우리는 여러 가지 조화된 맛을 즐기는 습성이 있어 술도 막걸리처럼 텁텁하면서 역시 차가운 것을 진미로 삼게 되었을 것(강인희, 1978)으로 보여져 각 나라마다 고유의 식생활문화에 따라 술에 대한 기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을 보면 '95년의 경우 한국인 1인당 맥주는 77.7병(500ml 기준), 소주 51.4병(360ml 기준), 막걸리 9.4병(750ml 기준), 위스키 0.5병(700ml 기준)등 모두 139병을 마신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는 '93년에 비해 맥주는 8.5병, 소주는 3.8병, 위스키는 0.1병이 늘어난 것이고, 막걸리만 유일하게 0.6병이 줄어든 결과이다. 여기서 한국인 1인당 음용량을 100% 알코올로 다시 환산하면 소주 4.42ℓ, 맥주 1.6ℓ, 스플릿(막걸리 포함) 0.86ℓ, 청주 0.18ℓ 등 총 7.07ℓ로 지난 '90년에 비해 0.17ℓ가 늘어난 규모가 된다. 이러한 결

과는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된 북셀부르크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같이 1인당 10ℓ를 넘는 나라들(매일경제신문, 1995.6.10일자)에 비해서는 아직은 상당히 적은 양이지만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술소비량의 증가수치와 반드시 상관 관계를 갖는다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95년 5월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5일동안 2,213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94년 동기에 비해 133명이 많은 것이라고 한다(조선일보, 1995.6.6일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크게 늘어서 보험개발원은 '94년 4~12월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8,938건의 4.2%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발표하였다(서울신문, 1995.4.17일자). 그리고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90년의 1.6%에서 '94년에는 5.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동아일보, 1995.4.17일자) 음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짐작케 해 준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은 잘못된 음주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와 관련하여 조사된 몇 가지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대신문'이 남녀건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음주경향을 물어본 결과 70%가 '매주 한차례 이상' 술을 마신다고 응답했으며, '2차 이상'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6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필름이 끊길 정도'라는 응답도 5%나 있었다. 음주목적은 51%가 '교제 때문'이라고 했으나 상습음주파도 16%나 차지하였다. 이들이 음주에 사용하는 술값은 1회당 '5천~1만원'이 33%로 가장 많았으나 '2만원 이상'도 11%나 차지하여 대학생들로서는 다소 부담이 큰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중앙일보, 1995.4.27일자). 직장인들의 음주실태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1주일간 음주일이 평균 1.69일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자가운전 등으로 가능하면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예 안마신다'가 2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주일내 '3일간'은 15.6%, '4일간'은 5.6%, '5일간' 떠는다도 4%나 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1주일내

평균 1.86일로 가장 많았지만, 30대는 1.61일, 20대는 1.73일로 나타나 30대에 비해 20대가 더욱 빈번히 마시며, 생산직에 비해 사무직이 술을 마시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5.5.18일자).

한편 대교협에서 실시한 대학생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이유는 '친구 또는 선후배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가 3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그냥 술이 좋아서'와 '술자리가 좋아서'가 28.6%로 나타나 있어 소위 사회적 사교목적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술을 마시는 장소로는 '생맥주집'이 가장 많아 외국의 대학생의 경우와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다음이 소주방, 일반 주점과 노바다야키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요즘이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생 사회에서 선풍되어 온 생맥주집 문화와 80년대 말 이후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소주방이나 노바다야키 문화가 혼재해 있는 전환점이라고(매일경제신문, 1995.9.20일자) 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특별한 놀이문화의 부재로 음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주율은 남녀별로도 약간 다른 차이를 보여서 '93년에 비해 '94년에는 남성의 경우 학력에 따라 음주율이 달라지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음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졸 이하 여성의 12%만이 술을 마시는 반면, 중졸은 14.9%, 고졸은 23.1%, 대졸은 28.1%의 음주율을 나타내고 있다(조선일보, 1995.7.22일자).

III. 연구방법

조사대상자는 청주시 소재 대학교(서원대, 청주대, 충북대)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과 청주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20대 남녀 직장인(회사원, 공무원, 간호사, 자영업자 등)으로 하였고, 자료수집은 1995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281부 중 부실기재분을 제외한 27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대학생 137명과 직장인 14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음주태도 및 성향, 음주행태와 음주습관을 묻는 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음주태도 및 성향

<표 1>은 '음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결과로, 전체 응답자의 79.4%가 음주는 '성에 관계없이 괜찮다'는 견해를 보여, 20대는 음주에 대해 대체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χ^2 검증결과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음주에 대한 태도

구 분	N(%)			계
	성에 관계없이 괜찮다	여성 또는 남성은 괜찮다	성에 관계없이 좋지않다	
대학생	101(82.1)	5(4.1)	17(13.8)	123(100.0)
직장인	95(76.6)	5(4.0)	24(19.4)	124(100.0)
계	196(79.4)	10(4.0)	41(16.6)	247(100.0)

$$\chi^2 = 1.3748 \quad df=2$$

다음 <표 2>에서는 '처음 술을 마셨던 상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가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처음으로 술을 마신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모님이나 친지'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χ^2 검증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대학생은 직장인보다 '부모님이나 친지'와 처음으로 술을 마신 경우가 많은 반면, 직장인은 대학생보다 '친구나 동료'와 처음으로 술을 마신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를 처음 술을 배울 때에는 어른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일반적인 속설과 관련지어 볼 때 대학생들이 직장인 보다는 바람직하게 술을 배웠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대학생이 장차 직장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음주 생활은 지금 보다 바람

직하게 형성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표 2> 처음에 술을 같이 마셨던 상대

구 분	N(%)				
	부모님· 친 지	형 제· 선 배	친 구· 동 료	그 외	계
대학생	42(30.7)	17(12.4)	70(51.1)	8(5.8)	137(100.0)
직장인	19(14.4)	21(15.9)	83(62.9)	9(6.8)	132(100.0)
계	61(22.7)	38(14.1)	153(56.9)	17(6.3)	269(100.0)

$$\chi^2 = 10.1672^{**} \quad df=3 \quad ** P < 0.05$$

또한 이들이 '술을 처음 마시게 된 이유'¹⁾는 <표 3>에서와 같이 '모임 또는 기념할 일이 있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호기심으로'나 '별 이유없다'였다. 여기서 20대들은 진정한 놀이문화의 결여로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나 특별한 이유없이 자연스럽게 술을 대하게 되는 음주생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χ^2 검증결과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간에 차이는 없었다.

<표 3> 처음 술을 마신 이유

구 분	N(%)			
	호기심 으로	모임또는 기념할일 이 있어서	별 이유 없다	계
대학생	28(21.4)	67(51.1)	35(26.7)	131(100.0)
직장인	25(21.6)	72(62.1)	19(16.4)	116(100.0)
계	53(21.5)	139(56.3)	54(21.9)	247(100.0)

$$\chi^2 = 14.1291 \quad df=2$$

<표 4>에서는 '주로 술을 같이 마시는 상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주요상대는 처음 술을 마실 때와 같이 '친구나 동료'가 가장 많아 92.7%로 나타났다. 이것은 집안 어른들과의 접촉이 매우 부족한 젊은이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따라서 잘못 형성된 그들의 음주습관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는 χ^2 검증결과 대학생과 직장인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 김준숙·안성순(1995, 미간행)의 성별비교 결과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남자는 '호기심' 때문에, 여자는 '타인의 권유' 때문에 처음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로 술을 같이 마시는 상대

구 분	N(%)		
	친구나 동료	그 외	계
대학생	115(91.3)	11(8.7)	126(100.0)
직장인	115(94.3)	7(5.7)	122(100.0)
계	230(92.7)	18(7.3)	248(100.0)

$\chi^2 = 4.1866$ $df=1$

젊은이들이 '주로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임이나 교체 때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생일이나 기념일'로 나타나 대체로 교체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기분 때문에' 마신다고 응답한 13.7%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자칫 상습음주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짐작되는데, 이는 건대에서의 조사(1995)나 대교협 조사결과(1995) 대학생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는 비율이 많다는 지적과도 일치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χ^2 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 주로 술을 마시는 이유

구 분	N(%)			
	모임· 교체 때문	생일· 기념일에	기분 때문에	계
대학생	74(63.8)	23(19.8)	17(14.7)	116(100.0)
직장인	75(67.6)	21(18.9)	14(12.6)	111(100.0)
계	149(65.6)	44(19.4)	31(13.7)	227(100.0)

$\chi^2 = 0.6114$ $df=2$

이번에는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²⁾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표 6>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반 이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χ^2 검증결과 직장인에 비해 대학생 집단에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혼자 술 마신 경험

구 분	N(%)		
	있 다	없 다	계
대학생	90(65.7)	47(34.3)	137(100.0)
직장인	62(47.0)	70(53.0)	132(100.0)
계	152(56.5)	117(43.5)	269(100.0)

$\chi^2 = 9.5896^{***}$ $df=1$ $***P<0.01$

그런데 이들이 '혼자 술을 마신 이유'로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힘들고 울적해서'와 '고민이 있어서'가 각각 약 40% 정도의 응답율을 보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χ^2 검증결과 대학생과 직장인의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7> 혼자 술을 마신 이유

구 분	N(%)			
	힘들고 울적해서	고민이 있어서	별 이유 없이	계
대학생	38(43.2)	35(39.8)	15(17.0)	88(100.0)
직장인	22(40.7)	20(37.0)	12(22.2)	54(100.0)
계	60(42.3)	55(38.7)	27(19.0)	142(100.0)

$\chi^2 = 0.5835$ $df=2$

2. 음주행태

'1달에 몇번이나 술을 마시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8>에서와 같이 '1~2번'이 전체 응답자의 약 3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4회'도 26.1%로 대체로 1주일에 1번 이상 술을 마시는 응답자가 55.6%나 되었다. 그런데 1달에 '5회 이상' 마신다는 응답자도 전체적으로 29.1%나 되어 술을 마시는 회수가 빈번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과 직장인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8> 1달에 술을 마시는 회수

구 분	N(%)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대중 없다	계
대학생	37 (27.0)	35 (25.5)	21 (15.3)	24 (17.5)	20 (14.6)	137 (100.0)
직장인	42 (32.1)	35 (26.7)	12 (9.2)	21 (16.0)	21 (16.0)	131 (100.0)
계	79 (29.5)	70 (26.1)	33 (12.3)	45 (16.8)	41 (15.3)	268 (100.0)

$\chi^2 = 2.8625$ $df=4$

2) 김준숙·안성순(1995, 미간행)에서 보면 남녀간에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표 9>에서 '1달 수입 중 음주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 보았는데, '10% 이하'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63.6%로 가장 많아 음주회수에 비해 그다지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사료되지만, '31%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2%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χ^2 검증결과 1% 수준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체수입이 적은 대학생이 직장인에 비해서 음주비용 부담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9> 1달 수입 중 음주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N(%)				
구 분	10%이하	11-30%	31%이상	계
대학생	74(55.2)	35(26.1)	25(18.7)	134(100.0)
직장인	94(72.3)	29(22.3)	7(5.4)	130(100.0)
계	168(63.6)	64(24.2)	32(12.1)	264(100.0)

$$\chi^2 = 13.0108^{***} \quad df=2 \quad ***P<0.01$$

이들이 '1회 음주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인의 경우 '3만원 이상'에의 응답자가 23.8%로 대학생의 17.1%보다 많아서 자신의 수입원을 가진 직장인이 그렇지 못한 대학생에 비해 1회 음주비용으로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나 χ^2 검증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1회 지출하는 음주비용

N(%)				
구 분	3만원 이상	3-6만원 정도	6만원 이상	계
대학생	111(82.8)	18(13.4)	5(3.7)	134(100.0)
직장인	99(76.2)	23(17.7)	8(6.1)	130(100.0)
계	210(79.5)	41(15.5)	13(4.9)	264(100.0)

$$\chi^2 = 2.3465 \quad df=2$$

<표 11>에서 젊은층은 '1회 음주시 자리를 몇번이나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이동한다' 라는 응답에 대학생은 60.8%, 직장인은 58%가 답하여 두 집단 모두에서 '이동하지 않는다'보다 더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것은

술을 마실 때에는 원래 술자리를 갖게 된 이유보다는 술을 마시는 중에 조성된 분위기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는데, χ^2 검증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1> 음주시 자리이동 회수

N(%)				
구 분	옮기지 않음	1 번 이 동	2 번 이 동	계
대학생	52(39.1)	37(27.8)	44(33.1)	133(100.0)
직장인	55(42.0)	47(35.9)	29(22.1)	131(100.0)
계	107(40.5)	84(31.8)	73(27.7)	264(100.0)

$$\chi^2 = 4.3418 \quad df=2$$

이들이 즐겨마시는 술의 종류를 <표 12>에서 알아 본 결과 '맥주'가 83.5%로 가장 많았는데, 여기서 20대 젊은 층에서는 맥주가 대중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양주나 칵테일'이 '소주'보다 미미한 차이지만 더 많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χ^2 검증결과 대학생과 직장인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2> 즐기는 술의 종류

N(%)				
구 분	양주· 칵테일	맥주	소주	계
대학생	10(8.3)	99(82.5)	11(9.2)	120(100.0)
직장인	10(8.3)	104(86.7)	6(5.6)	120(100.0)
계	20(8.3)	203(84.6)	17(7.1)	240(100.0)

$$\chi^2 = 1.5937 \quad df=2$$

다음 <표 13>에서는 이들이 '주로 술을 마시는 곳은 어디인가'를 살펴 보았는데, '호프나 레스토랑'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점이나 소주방'이었다. 이 결과에 대한 χ^2 검증결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보다 직장인이 호프나 레스토랑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대학생은 직장인보다 주점이나 소주방, 집 등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실태는 그들이 지출하는 음주비용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3> 술 마시는 장소

구 분	N(%)				
	호 프. 레스토랑	주점· 소주방	집	기타	계
대학생	48 (35.8)	42 (31.3)	22 (16.4)	22 (16.4)	134 (100.0)
직장인	80 (61.1)	29 (22.1)	11 (8.4)	11 (8.4)	134 (100.0)
계	128 (48.3)	71 (26.8)	33 (12.5)	33 (12.5)	265 (100.0)

$\chi^2 = 17.6819^{***}$ df=3 *** P<0.01

3. 음주습관

<표 14>부터 <표 21>은 젊은층의 음주습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먼저 <표 14>에서 술버릇이 있다고 응답한 134명(전체의 49.4%)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술버릇을 보면, 전체적으로 '웃거나·운다', '말이 많거나 적어진다', '그냥 잔다'의 순으로 나타나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난폭해지는' 것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술버릇은 대학생과 직장인간 χ^2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4> 술버릇

구 분	N(%)			
	말이 많거나 적어짐	그냥 잔다	웃거나 운다	계
대학생	10(24.4)	13(31.7)	18(43.9)	41(100.0)
직장인	14(35.9)	9(23.1)	16(41.0)	39(100.0)
계	24(30.0)	22(27.5)	34(42.5)	80(100.0)

$\chi^2 = 1.0436$ df=2

다음 <표 15>에서는 '음주를 전후해서 건강을 위한 제품을 섭취하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안한다'는 응답자가 약 75%로 젊은층에서는 음주시 아직 건강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χ^2 검증결과 대학생 집단과 직장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섭취한다'는 응답자(67명)를 대상으로 섭취하는 제품의 종류를 알아본 결과 '우유'가 40.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식사를 한다'가 25.0%, '드링크류' 17.2%의 순

으로 나타났다.

<표 15> 음주 전후 건강을 위한 제품의 섭취여부

구 분	N(%)		
	한 다	안 한다	계
대학생	33(24.3)	103(75.7)	136(100.0)
직장인	34(26.0)	97(74.0)	131(100.0)
계	67(25.1)	200(74.9)	267(100.0)

$\chi^2 = 0.1013$ df=1

이번에는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47명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가'를 <표 16>에서 살펴 보았는데, 그들 중 83%가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음주운전 문제는 실제로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입증해 주었다.

<표 16> 음주운전 경험여부

구 분	N(%)		
	있 다	없 다	계
대학생	15(88.2)	2(11.8)	17(100.0)
직장인	24(80.0)	6(20.0)	30(100.0)
계	39(83.0)	8(17.0)	47(100.0)

'평소에 흡연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흡연'이 66.4%로 젊은층의 대다수가 흡연을 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여부는 χ^2 검증결과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어 직장인이 대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이 금연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흡연 여부

구 분	N(%)		
	흡 연	비 흡 연	계
대학생	57(41.9)	79(58.1)	136(100.0)
직장인	33(25.0)	99(75.0)	132(100.0)
계	90(33.6)	178(66.4)	268(100.0)

$\chi^2 = 8.5894^{***}$ df=1 *** P<0.01

이번에는 평소에 흡연을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주시 흡연정도는 어떠한가'를 <표 18>에서 알아 보았는데, '평소보다 많다'는 응답자가 86.5%나 되어 음주와 흡연의 관련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표 18> 음주시 흡연정도

구 분	N(%)			계
	평소와 같 다	평소보다 많 다	평소보다 적 다	
대학생	4(7.1)	51(91.1)	1(1.8)	56(100.0)
직장인	5(15.2)	26(78.8)	2(6.0)	33(100.0)
계	9(10.1)	77(86.5)	3(3.4)	89(100.0)

'음주하는 날 평균 귀가시간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시에서 24시'사이라는 응답자가 반을 넘고 있으며, '24시 이후'라는 응답자도 31.3%나 되어 귀가시간이 매우 늦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χ^2 검증결과 두 집단간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학생이 직장인보다 '24시 이후'라는 응답자가 훨씬 더 많고, 직장인은 대학생보다 음주 후 상대적으로 일찍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19> 음주시 평균 귀가시간

구 분	N(%)			계
	21 시 이 전	21-24시 사 이	24 시 이 후	
대학생	11(8.2)	69(51.5)	54(40.3)	131(100.0)
직장인	21(16.4)	79(61.7)	28(21.9)	128(100.0)
계	32(12.2)	148(56.5)	82(31.3)	262(100.0)

$$\chi^2=11.9134^{***} \quad df=2 \quad *** P<0.01$$

'음주시 단골로 가는 집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표 20>에서 보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3/4을 넘고 있으며, χ^2 검증결과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간에는 아무런 유의 차를 보이지 않아서 젊은층들은 대체로 그때 그때 음주 장소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0> 단골집 여부

구 분	N(%)		계
	있 다	없 다	
대학생	33(24.6)	101(75.4)	134(100.0)
직장인	29(22.1)	102(77.9)	131(100.0)
계	62(23.4)	203(76.6)	265(100.0)

$$\chi^2= 0.2291 \quad df=1$$

IV. 요약 및 제언

이상 청주지역의 20대 대학생과 직장인 27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음주생활을 음주태도 및 성향, 음주행태, 그리고 음주습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대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대체로 성에 관계없이 술을 마시는 것을 매우 관대하게 수용하고 있었다.
- 처음 술을 배울 때에 부모님이나 친지를 통해서 배운 비율이 대학생집단에서 직장인 집단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들이 처음에 '별 이유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한 점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진정한 대학문화의 결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젊은이들은 주로 '친구나 동료'와 술을 마신다고 하여 집안어른들과의 접촉회회가 매우 부족한 그들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주로 '사교적인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지만 상습음주파로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기분 때문에' 마신다는 응답자도 많은 점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직장인보다 대학생 집단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경험자가 더 많으며, 그들이 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신다고 한 점에서 대학생들은 그들의 장래문제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술의 기능을 감안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생활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 1달 평균 음주회수, 1회 음주시 자리이동회수와 음주시 즐겨마시는 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직장인과 대학생 두 집단은 대체로 같은 경향을 보였다. 즉 1주일에 한 번이상 술을 마시는 응답자가 전체의 55.6%로 가장 많았고, 음주시 자리를 이동하는 비율이 59.5%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으며,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달 수입 중 음주비용이 차지하는 비율과 술마시는 장소는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행태는 경제적 능력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자동차를 소유한 20대들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은 80%를 넘었고, 음주시 건강을 고려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술을 마신 다음 난폭해지는 따위의 바람직하지 못한 술버릇을 가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흡연자 중 음주시 흡연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음주시 귀가시간은 대학생들이 출근시간의 부담을 안고있는 직장인보다 더 늦게 나타났고, 대부분이 음주기회가 있을 때마다 음주장소를 그때그때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음주생활 유도들을 위한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술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고, 인간에게 있어서 술은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필요악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간에 담배와 함께 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하나의 기호품으로서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또한 이제는 남녀간에서도 친목이나 교제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술이라고 할 정도로 주요한 유희유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 다른 이유없이 술을 대하게 되는 젊은이들이 많으므로 바람직한 음주생활을 위해서는 그들이 처음 술을 배울 때 그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는 부모나 선배들로부터 올바른 음주철학을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술을 실험실 안의 시약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하려 하지 말고 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원하는 올바른 음주요령³⁾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건강에 맞는 음주법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소득원이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대학생 집단과 비교해서 음주에의 지출 비용이나 술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마시는 행태, 그리고 같은 주종을 마시더라도 좀더 비싼 장소에서 마시는 경우가 많게 나타난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스스로의 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면 대학생 집단은 직장인에 비해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거나 술을 마신 날 귀가시간이 늦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으로서 별로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놀이문화의 부재라는 문제일 것이다. 대학생이 즐길 수 있는 합당한 놀이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별 이유없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시간사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학교제도 하에서는 고등학생에게는 금지되었던 여러 가지가 대학생에게는 한꺼번에 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술과 담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학생이 되자마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각종 기회를 통하여 여과없이 술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나의 유행병처럼 필수과목처럼 술을 대하게 된다. 대학시절 그렇게 형성된 음주습관은 직장인이 되어서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기회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의든 타의든 술과 함께 생활할 수 밖에 없는 현대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음주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은 술을 왜 마시고 있으며, 어떻게 마시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를 스스로 확립해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인희(1978), 한국식생활사, 수학사.
 김운주(1986), 대학생의 음주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충북대학교 논문집 제 31집, 539-553.

3) 건강과 올바른 음주요령에 대해서는 (채범석, 1989;1991), (유태중, 1994), (홍순명 외, 1991), (소비자 시대, 1994.9), (매일경제신문, 1995.6.10일자) 등을 참조하기 바람.

- 김준숙·안성순(1995), 20대의 음주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청주지역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
상으로-, 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
- 동아일보(1995.4.17일자, 1995.11.8일자).
- 매일경제신문(1995.6.10일자, 1995.9.20일자).
- 박동기 외(1994), 영양화학, 유림문화사.
- 서울신문(1995.4.17일자).
- 소비자시대(1988.8, 1994.9), 한국소비자보호원.
- 심상국 외(1992), 식품학, 교문사.
- 안홍식(1991), 여성과 영양, 교문사.
- 이성우(1984), 한국식품사회사, 교문사.
- 월간 식생활(1986.9, 1991.2), 식생활개선 범국
민운동본부.
- 유태중(1994), 식품보감, 도서출판 하우.
- 윤서석(1994), 한국음식, 수학사.
- 정민성(1991), 생활건강의 지혜, 학민사.
- 조선일보(1995.5.18일자, 1995.6.6일자, 1995.7.
22일자).
- 중앙일보(1995.4.27일자).
- 채범석(1989), 병원영양학, 도서출판 아카데미
서적.
- (1991), 사람의 영양학, 도서출판 아카데
미 서적.
- 홍순명 외(1991), 건강과 영양, 울산대 출판부.